

아시아·太平洋 時代를 향한 韓·日關係 展望

金 太 智*

目 次

要旨

I. 序言

II. 亞·太地域의 움직임

III. 亞·太時代에 있어서의 우리의 外交的 對應과 韓·日關係

〈要地〉

共産主義體制 몰락으로 인한 냉전의 소멸로 경제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된 가운데 미국은 유일한 超強大國으로 등장하였습. 그러나 냉정종식에 따라 미국의 駐屯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은 물론 미국자체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亞·太地域에서 미국의 점진적이고 상대적인 후퇴가 예상됨. 하지만 미국은 점차 퇴조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역동하는 亞·太地域에서 가능한 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수행코자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일본 및 중국은 물론 한국 등과의 협조를 증시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

中國은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 추구해 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세적 입장에서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감은 물론 미군 주둔을 포함한 미국의 域內 존재 및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일본과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경계하면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APEC 등 역내 각종 經濟協力機構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한편 일본은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증대된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周邊國家들의 경계심을 감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亞·太地域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증시하고 美·日 友好協力體制를 지속하려 함.

亞·太地域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변화의 와중에서 의세에 의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주체적인 자세로 임해나가야 할 것임. 이와 관련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 즉 統一韓國의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그러나 주체적인 外交가 周邊國家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亞·太地域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증대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한국의 안보적 여건에는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바,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유지하되 韓·美間의 전통적인 友好 및 協調關係를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임.

한국이 亞·太地域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오늘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軍事力 보다 經濟力이 더욱 중요해진 세계속에서 경제 超強大國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증대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점진적이고 상대적인 미국의 후퇴에 상응하여 亞·太地域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 증대도 불가피할 것인바 일본과의 기존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 것은 한국의외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亞·太地域 제반문제에 대해 韓·日 양국은 많은 면에서 공동인식을 갖고 있는 바, 선후진국간 교량역할 수행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지위를 활용하면서 韓·日 양국이 협조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앞서 韓·日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다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국민 상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문제에도 조속히 공동 대처해야 할 것임.

I. 序 言

世界情勢가 지금까지 北大西洋을 가운데 두고 유럽과 美國이 中心이 되어 움직여 왔다고 하면, 21世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는 經濟나 貿易規模面에서 아시아·太平洋 地域(“亞·太地域”)이 압도해 가고 있으며, 政治的인 面의 比重도 增大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太平洋時代”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主題에서 특히 “時代”가 指摘되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고 보나, “아시아·太平洋”이라는 地域의 範圍를 明確히 할 必要가 있음. 本稿에서는 太平洋을 가운데 두고 經濟的인 成長의 幅이 클뿐더러 最近 地域的인 協力體制를 굳혀 가고 있는 太平洋 西海岸의 亞洲諸國과 北美와 오세아니아, 즉 APEC(아시아·太平洋 經濟協議體)地域을 中心으로 論하고자 함.

敘述의 順序로서는 우선 世界情勢의 特徵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亞·太地域의 움직임과 關聯, 域內 主要國家 및 地域그룹의 立場, 특히 日本의 態度를 논한 다음, 亞·太地域 情勢의 變化에 대한 우리의 外交的 對應, 그중에서도 특히 韓·日關係의 展望과 우리의 對應에 關係 언급코자 함.

II. 亞·太地域의 움직임

1. 最近 世界情勢 變化의 몇가지 特徵

- 가. 最近 世界情勢變化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 體制의 沒落, 蘇聯의 崩壞, 그에 따른 東西冷戰體制의 消滅을 들 수 있음.
- 나. 共產主義體制에 대신하여 自由民主主義 및 市場經濟 原理와 體制가 世界的으로 普遍化 되어가는 추세에 있음. 특히 市場經濟 原理는 政治體制에 있어서 社會主義에 집착하는 일부 社會主義 國家들마저 導入해 가고 있는 있음. (中國, 越南, 심지어 北韓까지)

다. 冷戰體制의 소멸로 당연히 西方側 領導國家인 美國이 유일한 超強大國으로 되었으나, 힘(특히 經濟力)의 저하로 世界安保와 平和維持의 결정적 領導力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임. 걸프戰爭時 보았듯이 美國은 事態對應에 主導的인 役割을 담당하였으나, 各國의 多方面에 걸친 參與가 필요하였음.

라. 冷戰體制는 소멸되었으나, 地域的 不安要因이 尚存하고 있음.

民族主義 대두로 인한 紛爭(舊蘇聯, 유고와 같은 東歐 一部國家 等), 地域 霸權主義的 행동으로 인한 紛爭(걸프戰爭) 외에도 一部 殘存 社會主義國家의 體制 沒落을 계기로 한 紛爭(中國, 韓半島 等)들을 예상할 수 있음. 덧붙여 南과 北間의 經濟的 隔差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커다란 潛在的 紛爭要因이라고 할 수 있음.

마. 이 모든 情勢變化에 對應하여 美國도 自國의 힘의 弱화를 認識, 일부 內治爲主의 孤立主義 傾向이 國內的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大部分은 美國이 繼續하여 超強大國으로서 國際的 役割을 擔當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美國의 役割 持續은 예상되나, 諸般與件에 맞추어 彈力性 있게 對應해 나갈 것임.

(1) 紛爭要因의 除去 내지 抑制에 努力

- 徹底한 核管理, 軍備縮小, 武器去來 抑制 등
- 第三世界 諸國에 대한 經濟協力 強化

(2) 紛爭發生時的 對應

美國의 直接的인 軍事的 介入없이 地域的 管理促進, 軍事的 介入은 아래와 같은 點을 勘案, 慎重히 對處

- 美國自體의 利益과 直結될 것
- 名分の 確保(UN의 役割 增大)
- 主要 強大國의 參與와 協力
- 美國民의 支持

바. 世界情勢는 새로운 秩序와 安保體制를 摸索하면서 아직도 流動的임.

2. 亞·太地域의 情勢

가. 亞·太地域의 特徵

- (1) 亞·太地域은 人種, 宗教, 政治·經濟的 理念 및 體制, 國家에 따른 經濟發展 程度의 차이 등, 여러 面에서 多樣할 뿐더러 歷史的으로도 하나의 地域으로서의 域內國家間 連關意識이나 結集 努力의 經驗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우와 다름.
- (2) 그러나 域內에서 特히 市場經濟體制를 維持하는 太平洋 沿岸國家들이 한편으로 經濟의 急速한 發展을 이룩하고(日本의 經濟大國으로의 부상, 韓國을 위시한 新工業國家群의 잇다른 經濟的 浮上, 그룹內 協力機構로서의 ASEAN의 착실한 發展과 同會員國들의 經濟的 成長, 濠洲 및 뉴질랜드의 太平洋 諸國과의 連帶 努力 등), 다른 한편으로는 歐洲을 비롯한 他地域에서의 域內 相互協力 내지 統合의 움직임에 자극되어 域內國家間 相互協力 내지 統合의 움직임에 자극되어 域內國家間 相互協力 體制를 摸索하게 됨. 우선 經濟通商面에서의 相互協력을 기한다는 目的으로 APEC의 成立되고 그간 3次의 關係會議을 거치면서 協議體로서 뚜렷한 成長을 期待할 수 있게 된 것은 뜻있는 進展임.
- (3) 유럽에서 共產主義 理念과 體制의 崩壞는 亞·太地域內 社會主義 國家들에게 심대한 影響을 주고 있음. 이 地域에 殘存하고 있는 社會主義 國家들은 東歐에서 본 바와 같은 短期間內의 連鎖的 崩壞事態 發生의 조짐은 아직 없으나, 經濟의 어려움이 深刻하여 現體制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함. 中國은 社會主義 一黨獨裁體制에 執着하는 한편 經濟面에서는 比較的 일찍부터 市場經濟 原理를 導入, 나름대로의 實績을 거두면서 所謂 “政左經右”의 路線을 걷고 있으며, 北韓과 越南 역시 어려운 經濟狀況을 脫皮하기 爲하여 中國의 경우를 모방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볼 때 亞·太地域에 있어서도 적어도 經濟的 原理와 政策에 있어서는 普遍化, 同質化의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4) 한편 東西冷戰의 終熄은 이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強力한 存在의 必要性

을 減少시킴으로써 美國 自體의 經濟力 弱화와 더불어 域內駐屯 美軍의 減縮 等 政治·軍事面에서도 미국의 漸進的 後退를 가져오고 있음.

地域安保라는 側面에서 美國의 漸進的 後退는 域內的 새로운 秩序 形成과 關聯, 重要的 意味를 가지며 域內 各國은 이와 같은 情勢變化에 대한 對應을 위해 나름대로 腐心하고 있음.

나. 域內 主要國家의 움직임

(1) 美國

- 冷戰後의 世界 新秩序와 關聯하여 豫想되는 美國의 基本的인 對處方向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亞·太地域의 新秩序 形成에 있어서도 美國은 太平洋 國家라는 立場에서 可能的한 主導的 役割을 繼續 遂行코자 할 것임.
- 美國은 從來부터 亞·太地域內 地域安保 體制의 缺如, 域內 各國의 多樣性(특히 美國과의 關係面에서), 紛爭發生 危險性的 存在 等 諸狀況을 勘案, 美國의 戰略的 利益을 保護할 수 있도록 美國을 中心으로 하여(마치 부채의 中心과 같이) 一部國家와는 美軍의 常駐를 包含한 同盟關係(韓國, 日本, 특히 美國으로서는 美·日關係가 對아시아 政策의 中心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임)를, 그밖의 國家들과는 兩者關係를 형성, 이를 통해 舊蘇聯을 牽制하면서 秩序維持의 役割을 하여 왔음.
- 冷戰崩壞 以後에도 基本政策 路線上 아직 큰 變化는 없으나, 舊蘇聯에 對한 對應의 意味가 相當히 감소된 현재 미국은 域內 국가들과의 關係를 재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몇가지 狀況 展開를 展望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美國은 域內 強大國인 日本과 中國과의 關係를 계속 증시할 것이며, 그러한 面에서 戰略적으로 重要的 位置에 있는 韓國과의 關係도 같은 延長線 위에서 다룰 것임.
 - 日本과의 兩國間의 通商摩擦로 一角에서 兩國間의 感情對立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狀況이지만, 美國으로서는 특히 經濟面에서의 日本의 域內 役割 增大가 必要하다고 보고 있으며, 日本 또한 狀況의 變化에도 不拘, 美國과의 緊密한 關係維持가 日本의 外交의 基本이라는 생각이 支配的인

기 때문에 兩國間 協調 姿勢를 持續될 것으로 보임. 日本의 經濟大國으로서의 擡頭와 그에 따른 政治的 役割의 增大 可能性에 關하여 美國은 兩國間 通商摩擦 等 불편한 關係임에도 不拘하고 다른 域內國家보다는 훨씬 警戒的이며 따라서 牽制보다는 오히려 어느 面에서 日本의 域內 役割 增大를 期待하는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中國과는 天安門事態 以後 人權問題로 인해 美·中關係로 인해 美·中關係가 그간 多少 停滯的인 狀況에 있었으나, 最近 一連의 高位人士의 交換訪問 等으로 關係回復의 寄味가 있음.

美國으로서는 特히 UN 安保理 活動 等에서의 中國의 協調 外에도 核 및 各種 大量살상무기의 擴散防止라는 面에서의 中國의 行動管理 내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選別的으로 美·中間의 對話와 協調의 幅을 넓혀갈 것임. 또한 中國의 改革失敗 내지 保守化로의 逆流은 아시아의 큰 不安要因이 되기 때문에 市場經濟化, 民主化로 誘導하는 努力을 繼續할 것임.

ASEAN 所屬 各國의 對美態度는 一定치 않으나, 적어도 地域에 있어서의 潛在的인 威脅의 存在가 되는 中國, 日本, 러시아 등 強大國間的 “힘의 均衡”이라는 觀點에서 ASEAN은 域內 또는 周邊地域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美國의 繼續的인 軍事的인 存在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美國 또는 從來보다 縮小된 形態로라도 軍事的인 存在를 維持함은 물론 이를 基礎로 한 政治的인 役割을 遂行해 나갈 것임.

- 美國은 亞·太地域에서 歐洲에서와 같은 CSCE式 接近은 여러가지 狀況으로보아 時期尚早라고 보고, 基本的으로 現體制의 持續이라는 方向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

(2) 中國

- 社會主義 沒落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中國의 最大 關心事는 政治的으로 社會主義 體制를 維持함과 同時에 資本主義的인 經濟方式의 導入을 통하여 經濟發展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방대한 人口와 國土를 갖고 있는 中國의 脆弱性(人民의 民主化要求, 小數民族들의 民族主義

的인 움직임 등)으로 인해 발생될지도 모를 國家 내지 體制의 崩壞 可能性을 防止할 수 있는 길이라고 指導部는 믿고 있음.

- 그와 같은 基本路線은 外交面으로 반영되어 國際적으로 적극적인 姿勢보다는 守勢的인 立場에서 우선 自國을 둘러싼 隣近國家들과의 關係改善 내지 友好關係 維持를 통한 紛爭 可能性 除去, 周邊地域의 平和와 安定維持의 平和와 安定維持를 위해 努力하고 있음 (南北韓 和解 促進, 러시아 및 인도 등과의 關係 向上, 越南과의 關係改善과 캄보디아 問題 解決 推進等).
- 그런데 中國은 歷史적으로 所謂 中華思想이 對外政策의 重要한 背景으로 되어 왔으며, 특히 아시아는 歷史的, 文化的으로 中國文化圈에 속한다는 認識에서 여타 국가의 支配的인 영향력을 拒否하려는 것이 일관된 基本立場이라고 할 수 있음.
- 美國과는 人權問題 등으로 인한 壓力에 強하게 抵抗하는 한편 關係改善에도 努力하고 있으며, 前述한 바와 같이 冷戰終熄後의 美國의 外交的 努力에 맞서지 않고 여러면에서 協調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美軍駐屯을 포함한 美國의 域內 存在 및 役割遂行에 理解를 表示하고 있음.
- 日本과는 經濟力 增大를 背景으로 한 日本의 政治的 強國으로서의 擡頭 可能性을 警戒하면서도 經濟發展을 위하여 日本의 經濟協力이 絕對적으로 必要하기 때문에 關係強化에 努力하고 있음.
- ASEAN 등 東南亞 諸國에 對하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中國의 潛在的인 威脅에 관한 警戒心を 意識, 이들 國家를 刺戟하지 않고 宥和的인 態度로 임하고 있음. 特히 經濟發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觀點에서 域內 各種 經濟協力 機構에 參與(ESCAP, ADB 등)하는 同時에 APEC에도 臺灣, 香港 등과의 同伴加入을 甘受하는 등 積極的인 態度임.

(3) 러시아

- 舊蘇聯은 自國역시 太平洋에 面한 아시아 國家임을 指摘, 亞·太地域 各國과의 關係 增進, 域內 諸般協力活動에의 參與, CSCE의 集團安保構想 提議 등 적극적인 진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冷戰時의 美國의 牽制, 불편

했던 中國 및 日本과의 關係, 韓國과의 關係 不在, ASEAN 等 東南亞와 太平洋 諸國의 對蘇 不信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별다른 呼應을 얻지 못하였음.

- 舊蘇聯을 계승한 러시아 역시 같은 路線에 입각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體制崩壞, 內部分裂, 經濟破綻 등으로 인한 힘의 현저한 弱화로 意圖대로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며, 그와 같은 狀態下에서 러시아의 對아시아 政策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님.
- 特히 經濟協力을 期待하는 日本과의 北方領土 問題에 덧붙여 兩國民間의 不信까지 겹쳐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同 問題의 解決없이는 關係改善이 어려운 狀態임.
- 그러나 러시아의 동부지역(시베리아 以東)은 풍부한 各種 資源이 있어서 域內 各國의 關心 대상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내 各地域의 自治擴大에 따라 經濟通商面에 있어서 地域的인 協力 事業이 이루어질 可能性이 있음.

(4) ASEAN

- ASEAN은 그간 會員國의 共同努力으로 地域協力 機構로서의 基盤을 굳혀 多方面에 걸쳐 相互協力體制가 갖추어져 가고 있음. 따라서 APEC와 같은 ASEAN 會員國 전체와 美·日 等 先進強大國들을 포함한 協力機構의 構成 문제와 관련하여 ASEAN의 一部에서 이러한 多者的 協議機構가 ASEAN의 存在를 희미하게 할 수 있다는 憂慮를 갖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우려는 拂拭되어 가고 있음.
- ASEAN 諸國은 NIES에 이은 高度成長을 보이는 등 각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高度成長을 保障하는 環境造成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 또한 마하티르 말레이지아 首相의 EAEC 提案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發展을 함에 있어 美·西歐 等 先進諸國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發展을 추진하려는 생각도 擡頭하고 있음.

다. 日本의 움직임

- (1) 위와 같이 變化하는 國際情勢 가운데서 日本이 이에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에 關하여 現在 日本에서 活潑한 論議가 展開되고 있음. 그와 같은 論議는 日本이 經濟大國으로 浮上함에 따라 주목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變化하는 情勢에 日本이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하는 側面만이 아니라 經濟 超強大國 日本이 어떠한 國際的 役割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도 갖고 있음.

- (2) 日本은 第2次 世界大戰 敗戰後 東西間의 冷戰狀況下에서 美·日 安保條約을 基礎로 한 美·日間 同盟 내지 友好協力關係를 堅持하면서 安保的 保護를 받아 高度의 經濟成長을 거듭함으로써 世界 第2位의 經濟大國이라는 位置를 점하게 되었음.

日本 外交의 근간은 美·日 安保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東西冷戰의 終熄에 따라 根本的인 變化가 불가피하게 됨. (共通의 “敵”인 蘇聯共產主義의 沒落, 美의 對日經濟優位の 상실 등) 따라서 어떤 면에서 美·日關係의 再檢討 必要性 與否가 論議의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할 것임.

- (3) 日本 外務省 中心으로 日本政府當局이 情勢變化를 보는 視角과 對應 方向을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을 것임.

- 蘇聯, 東歐에서 일어난 共產主義體制의 沒落은 亞·太地域에도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하나의 地域으로서의 認識이 生長되어 가고 있는 이 地域에는 아직도 국지적인 紛爭이 繼續되거나 發生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地域內 紛爭의 수습 또는 發生 可能性의 억제를 위한 적절한 措置가 必要함. 日本으로서는 經濟力의 증대와 더불어 그와 같은 메카니즘 造成을 위한 共同努力에 參與하여야 함은 물론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日本 國內輿論 및 대다수 域內國家들이 期待하고 있는 바임. 따라서 日本은 增大된 經濟力에 걸맞게 다른 면에서도 나름대로 大國다운 役割을 수행함이 當然함.
- 日本의 役割과 關聯, 日本의 過去 行跡으로 말미암은 域內國家들의 警戒心은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日本의 基本的인 立場은 “건방지지 않고 思慮있는 姿勢를 지닌 強大國”(栗山 前 外務次官)이 되어야 함.

○ 具體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對處함.

- 美·日 友好協力體制는 變換 없이 堅持되어야 하며, 域內安保維持를 위한 美國의 存在 및 役割의 繼續 遂行을 積極 誘導하고 地域內 모든 問題에 關하여 協조적으로 對處함.

- 地域內, 특히 인접지역에 存在하고 있는 安定 威脅 要因제거에 노력함.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對策이 派生됨.

韓半島 : 北韓의 孤立化 防止, 核問題에 對한 엄격한 對應 및 修交, 韓國과의 友好協力關係 持續, 南北對話와 交流 促進, 韓半島 問題 논의를 위한 소위 "2+4 協議" 지지

中國 : 美國의 立場과는 다소 다르게 對中國 經濟 協力 등 強化, 國內 改革 支援, 對日 警戒心 緩和 및 日本의 域內 役割에 肯定的 態度로 나오도록 誘導

러시아 : 北方領土問題 先決 努力 및 이를 바탕으로 한 國交正常化, 經濟 協力 提供

上記와 같은 대응과 동시에 적절한 水準의 軍事力 維持

- 域內 各國에 대하여 通商 및 投資擴大를 통하여 經濟成長을 支援함. 캄보디아 등 紛爭收拾 努力에 PKF 派遣 등 적극 參與하고, APEC 등 地域協力機構 등을 통한 域內 各國間 대화와 協議의 範圍를 擴大토록 說得함. (長期的으로 地域平和와 安靜 造成 및 維持를 爲한 措置 推進)

Ⅲ. 亞·太時代에 있어서의 우리의 外交的 對應과 韓·日關係

1. 亞·太地域 情勢의 變化에 對應하는 우리의 外交

가. 亞·太地域 情勢의 變化와 關聯하여 重要한 關心地域의 하나가 되는 것이 韓半島임. 最近의 世界情勢 變化, 특히 共產主義體制의 沒落 및 東西獨의 統一等 事態의 움직임과 더불어 冷戰時代에 있어서 東西間 對立의 樣相이 가장 두드러진 곳의 하나였던 韓半島는 當然히 變化의 趨勢를 탈 수 있는 可能性을

지니고 있음. 現實의 問題가 되어버린 統一을 둘러싸고 南北韓 關係의 進展 여부가 亞·太地域의 새로운 秩序形成의 重要한 變數가 될 것임. 따라서 亞·太地域 變化에 대한 우리의 對應은 韓半島 問題에서 시작되는 것임.

나. 우리의 基本的인 對應方向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음.

- (1) 韓半島는 歷史的으로 世界列強의 勢力 多遂場이었기에 한국은 피동적으로 特性이 되어 왔고, 韓半島의 分斷도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음. 따라서 韓半島 주변의 各國(美, 日, 中, 러)은 韓半島의 情勢 變化가 自國의 利害關係와 直結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應分의 對應을 할 것이 豫見됨. 우리는 그동안의 經濟發展을 바탕으로 冷戰의 종식과정에서 北方外交의 推進 등으로 南北韓間 對話 接觸 재개, 南北韓의 UN同時加入 등을 통하여 外交의 幅을 넓히고 國際的 位相을 높힐 수 있었음. 따라서 韓半島 問題의 解決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뜻하는 方向으로 전개되도록 주체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임.

그와 같은 姿勢를 取함으로써 一部 關聯國家가 韓半島의 統一 努力을 沮害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拂拭할 수 있을 것임. 韓半島를 둘러싼 "2+4 協議"도 그와 같은 脈絡에서 對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2) 主體的인 對應 姿勢와 關聯하여 念頭에 들 것은 外交를 통하여 수호·伸張시켜야 할 우리의 利益을 冷戰下에서 分斷된 南韓만을 바탕으로만 하였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全體, 즉 統一韓國으로서의 利益이라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는 점이며, 國土統一의 展望이 現實化되어 갈수록 우리의 外交目標 및 方向 設定에 있어서 좀 더 巨視的이고 長期的인 측면에서 檢討가 加해져야 한다고 봄.

- (3) 우리의 主體的인 對應은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 地域의 安保的 틀 形成과 關聯된 各國間의 協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 이들 國家들과의 원활한 關係維持가 艱요함.

(그러한 점에서 그간의 變化로 한국이 이들 國家 모두와 正常的 내지 정상에 가까운 關聯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 현상임.) 이들 국가들과의 원활한 關係維持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韓半島 問題에 關한 對應 뿐만 아니

- 라 더 나아가서 亞·太地域 問題에 關하여도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均衡者 (balancer) 내지 調整者 (coordinator)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 것임.
- (4) 亞·太地域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體制를 유지하는 國家들이 一部 尚存하고 있어서, 특히 한국의 安保的 要件에 關한 基本的인 構圖에 큰 變化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狀況下에서 한국의 中短期的인 對應은 基本的으로 從來의 pattern에서 크게 일탈할 수 없다고 봄. 다만 狀況變化에 對應한 탄력성은 가질 必要가 있음.
- (5) 이와 같은 측면에서 韓國으로서는 冷戰終熄後 世界 安保面에서의 美國의 주도적 위치, 理念과 體制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한 韓·美間의 전통적인 友好關係, 韓·美間의 지리적 隣接성에 비추어 美國과의 緊密한 協調體制 維持를 대외전략의 基礎로 삼아야 할 것임. 日本, 中國, 러시아 등은 隣接國이라는 데서 韓半島의 情勢如何가 自國의 利害關係와 直結된다는 意識이 강하고 따라서 韓半島의 安定에 關한 바람이 더 強할 수 있다고 봄. 韓國으로서는 이들 國家들과의 協力 增大를 通하여 韓半島의 긴장완화 및 平和와 安定의 維持를 위한 支援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6) 亞·太地域 域內國家間 協力 增大를 爲한 協議體制의 強化와 관련하여 韓國은 韓國의 特殊한 位置(先進國과 開發途上國사이의 中進國)를 바탕으로 한 連繫的인 役割을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을 것이며, APEC에서 이미 行하고 있는 그와 같은 役割을 強化하는 方向에서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域內에서 提起되고 있는 몇가지 問題들에 對해 아래와 같은 方向에서 對處함이 좋을 것으로 봄.
- EAEC 提議 : 美國 等を 抑除하는 것은 地域安保維持 및 經濟通商面의 相互依存性 等を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慎重하게 對處할 必要 있음.
 - 地域機構로서 APEC의 性格 : EC NAFTA는 地域性 내지 排他性에 關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에 비추어 APEC는 이들 과는 달리 開放을 통한 他地域機構들과의 相互協力자세를 取함이 옳다고 생각함.
 - 亞·太地域에 있어서 CSCE의인 體制 造成 可能性 : 歐洲와는 달리 여러面

에서 多樣性을 가진 亞·太地域에서 CSCE的인 體制는 아직 非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域內國家들間의 安保論議의 축적을 통하여 漸進的으로 接近해 가야한다고 생각함.

2. 韓·日 관계 — 展望과 우리의 對應

가. 韓·日關係의 어제와 오늘

- (1) 1965년의 韓·日 國交正常化는 今世紀 初半에 있었던 日本의 韓半島 支配라는 不幸한 過去를 清算하고 兩國間의 關係를 正常的인 토대위에 올려놓는 劃期的인 것이었음. 兩國은 國交正常化 以後 여러가지 難關을 克服하면서 나름대로 두나라間의 關係를 착실하게 發展시켜 왔음. 가까운 이웃이고 不幸한 過去때문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兩國間 問題를 相互 努力하여 解決하여 왔으며, 國際的으로도 여러 分野에서 相互協調하여 왔음. 兩國間의 人的交流나 經濟通商交流도(물론 貿易均衡이라는 問題는 항상 있어 왔지만)크게 膨脹하였음. 작년초 當時의 海部 日本 首相이 訪韓하였을 時 兩國頂上이 兩國關係를 앞으로 同伴者로서 未來指向的으로 發展시킨다는 見地에서 友好3大原則을 천명하고, 相互間의 交流協力を 增進시켜 나감은 물론 亞·太地域 나아가서 汎世界的으로 諸般問題를 解決하는데 建設的으로 공헌한다고 한 것은 韓·日 兩國關係의 흐름에 비추어 當然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2) 그러나 兩國間에는 國民의식면에서 서로 相對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國民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것이 兩國間의 順調로운 發展을 주춤거리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 今年初宮澤 日本 首相의 訪韓이 때마침 야기된 종군 위안부 問題로 호려져 버리고, 이를 契機로 兩國關係가 多少 소원한 狀況에 머무르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며, 解放後 거의 半世紀, 그리고 國交正常化後만 하더라도 2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이와 같은 狀況이 展開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임.

나. 日本의 位相

- (1) 오늘날의 日本의 國際的 位相을 直視할 必要가 있음. 이미 敘述한 바와 같이 日本은 그간 高度成長을 通하여 世界的으로 막강한 經濟大國으로 浮上하였으며, 先進國 가운데서도 經濟가 가장 堅實다고 할 수 있음. 東西間 冷戰이 소멸된 後 政治·軍事力보다는 經濟力이 더 큰 影響力을 갖게 되는 世界로 變化하고 있으며, 따라서 日本은 願하건 하지 않건간에 經濟力에 걸맞는 국제적 役割을 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日本스스로도 이러한 의사를 表하고 있는 바 앞으로 亞·太地域, 나아가서 世界的으로 日本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임.
- (2) 韓半島에 있어서도 日本의 比重은 從來보다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北韓과의 修交交渉, 核問題에 對한 強한 關心表明 等 美國의 影響力 減少에 따라 日本의 發言權 增大가 두드러질 것임. 이에 덧붙여 韓國으로서는 經濟發展의 持續이 초미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이러한 面에서도 日本과의 協助關係를 계속 다져나가는 것이 韓國外交의 重要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다. 우리의 對應

- (1) 아시아·太平洋時代를 맞아 우리의 對亞·太 外交遂行에 있어 日本의 비중은 큰 것임. 日本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域內 諸國의 對日 警戒心으로 조심스러운 接近이 要請되므로, 韓國의 役割에 關心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음. 亞·太地域의 諸般問題에 對한 立場에 있어서 韓·日 兩國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 韓國의 獨特한 位置를 日本이 認識케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韓·日兩國이 협조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 (2) 韓·日兩國은 그에 앞서 未來指向的인 兩國 關係發展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를 위하여 兩國民 意識을 善道하는 문제에 早速히 共同對處하여야 할 것임.